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라 – (Love Boldly, Serve Joyfully, Lead Courageously) 기적의 주일 예배 및 소그룹 시리즈

6주 시리즈를 위한 자료 및 성경 구절 버지니아 연합회관 (v5)

이 6주간동안의 예배 및 소규모 그룹 시리즈에서는 전 세계 교회인들은 초대하여 기독교 제자훈련의 핵심을 함께 탐구합니다. 그 중심에는 단순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형성되고, 능력을 부여받으며,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 파송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주동안 제자훈련의 핵심적인 차원, 즉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되고, 성령에 의해 힘을 받으며, 담대하게 사랑하고, 즐겁게 섬기고, 용기 있게 이끌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의 모습에 동참함을 함께 탐구합니다.

이 시리즈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신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인 ‘기적의 주일 캠페인(Miracle Sunday Campaign)’을 지원합니다. 목회자, 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을 양성함으로써 교회는 지혜와 연민, 용기를 가지고 지역 공동체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투자합니다. 모든 교회는 2026년 한 해 동안 헌금을 모금할 것을 권장하며, 버지니아주는 **2026년 10월 11일에**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신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헌금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헌금의 영향력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와 자료는 <https://vaumc.org/miraclesunday/> ‘교회 코디네이터 매뉴얼(Congregation Coordinator’s Manual)’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지를 아래로 스크롤하여 매뉴얼을 찾아 다운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교회는 매주 다음과 같은 풍부한 자료를 받게 됩니다:

- 예배를 위한 주제별 소개
- 설교와 교육을 위한 성경 요약
- 세계 지도자들의 묵상과 기도
- 설교 준비 요점
- 토론 질문이 포함된 소그룹 리더 가이드
- 신학대학원 졸업생의 영상 간증

이 자료들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증언을 깊이하며, 담대한 사랑과 기쁨 섬김, 용기 있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하도록 돕습니다.

1주차 — 9월 6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제자들

서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제자로서의 형성을 통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전모를 빚어내십니다. 모든 문화와 공동체에서 제자들은 성경, 예배, 친교,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매일의 실천을 통해 형성됩니다. 연합감리교에서는 이를 “은혜의 수단” 또는 영적 훈련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정기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이해입니다.

이번 첫 주간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행동에서 그리스도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돌아보도록 초대합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고, 영적 성숙을 이루며, 예수님의 사명에 동참하는 평생의 여정입니다. ‘기적의 주일 캠페인’이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전역에서 신학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세상을 위해 어디서나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성경 구절

시편 119:1-8

시편 119편은 축복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번영이 주어집니다. 많은 공동체에서 ‘걷다’는 선택한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제작자는 제자훈련을 하나님의 계명에 발걸음을 맞추는 것으로 묘사하며, 이를 짐이 아니라 기쁨과 정직의 원천으로 여깁니다. 이 구절들은 전심전력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과 다른 충성심 사이에서

갈라지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시편제작자는 “주의 율법을 지키고자” 원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고백하며, 제자훈련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드러냅니다.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성실하게 살기를 추구하는 사람들과 동행한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모든 문화적 맥락의 회중에게 이 구절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갈망과 겸손에서 형성이 시작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학 교육은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심화시켜, 새로운 지도자들이 성경을 신실하게 해석하고 지혜로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에베소서 4:11-16

바울은 교회를 살아 있는 몸으로 묘사하며, 그리스도께서 온 몸을 형성하는 머리이심을 강조합니다. 사도, 선지자, 전도자, 목자, 교사 등 다양한 은사들은 교회가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성숙이란 안정과 연합, 그리고 수많은 상반된 목소리 속에서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양성은 개인의 과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소명입니다.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때 몸은 사랑 속에서 스스로를 구축합니다. 이 구절은 전 세계 신도들에게 제자훈련이 전체 공동체를 강화한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목회자들은 충실히 가르치도록 형성되고, 평신도들은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새로운 지도자들은 지역 사회의 맥락에서 사역을 이끌게 됩니다. 기적의 일요일 캠페인은 공동체가 단결, 지혜, 성숙함을 기르는 데 필요한 훈련된 지도자를 확보함으로써 이러한 성장을 지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성하여 우리가 다시 서로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5:1-11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신 사건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시작되는 양육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일하던 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지치고, 불확실하며, 변화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에 오르셔서 가르치시고, 그들을 더 깊은 물로 초대하십니다. 기적적인 어획은 예수님의 권위를 드러내고 베드로의 겸손을 일깨웁니다.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심판이 아닌 부르심으로 응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양성은 은혜로 시작되어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제자들은 익숙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대륙을 초월한 모든 교회 공동체에게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그들을 빚어 가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목회자, 전도자, 교사 등 새로운 지도자들의 형성도 같은 패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시며,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묵상과 기도

에베소서 4:11-16

성경 본문: 에베소서 4:11-16

묵상 / 성경 묵상:

저는 스위스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친구들과 저는 자기 결정권과 외부 통제 사이의 문제를 토론하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외부 통제 아래 살아간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런 긴장감은 사실과 달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본질을 반영하는 기쁨과 해방감 넘치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압박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작은 연합감리교회 공동체에 소속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제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도록 도왔기 때문입니다. 교회분들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깨닫도록 도움을 주셨고, 사역에 대한 조용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각 지체가 제 역할을 다하면, 몸은 자라나 사랑 안에서 서로 세워집니다”(에베소서 4:16). 이것이 제가 교회를 위해 드리는 기도입니다.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삶을 안팎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우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게 하소서. 이 세상에서 사역의 기쁨과 용기를 위해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담대히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각자에게 힘을 주소서. 아멘.

기고자: 패트릭 스트라이프 주교 | **장소:** 스위스

성경 본문: 시편 119:1-8 — 하나님의 길을 걷는 이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

묵상 / 성경 묵상:

최근 코펜하겐으로 가는 기차 여행 중, 나는 역에서 거의 반대 방향으로 출발할 뻔했다. 친구가 내 방향을 바로잡아 주어 무거운 여행 가방을 들고 멀리 걸을 수고를 덜 수 있었다. 나는 사람과 땅 위에 하나님의 길을 걷고자 하지만, 그 길을 분별하는 데 종종 도움이 필요하다. 시편 119편을 기도하며, 나는 귀와 눈과 마음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율례를 연구하기로 결심하고, 배운 것을 실천하기 위해 입과 발과 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훈련은 영적 방향을 바로잡아 줍니다. 이는 형제자매들이 통찰력과 영감, 그리고 교정을 제공하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연합감리교인들이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선교를 위해 그리스도 중심의 제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와 신학대학원에 감사드립니다.

에베소서 4:11-16 —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형성하시는,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의 몸

제 주치의는 나이가 들면 육체가 쇠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가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하도록 돕는 데 너무 늙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갑니다. 어떤 이들은 익숙한 곳과 낯선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비와 정의를 위해 예언자처럼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또 다른 이들은 제자훈련을 가르치며, 많은 이들이 기도를 통해 섬깁니다. 그 누구도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지닌 우리는 가정과 카페, 병원과 교실, 성전에서 서로와 함께 배우고 서로에게서 배웁니다.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머리이십니다. 우리는 지역적으로,

광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으로 하나되어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는 함께 성숙해져 갑니다.

누가복음 5:1-11 —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을 부르시며 사명을 위한 삶을 형성하시다

베드로와 동료들은 밤새 그물을 비우고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위해 그들의 배를 빌리신 뒤, 다시 시도해 보라고 부르십니다. 그 결과 풍성한 어획이 뒤따릅니다. 그물이 팽팽해지고 배가 가라앉을 뻔합니다. 압도당한 베드로는 예수님께 떠나 달라고 청합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무르시며 그들에게 평생의 사명을 맡기십니다. 기적의 주일을 앞두고 신학 교육을 위한 큰 헌금이 있다면 참으로 좋겠지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물 그 이상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피로, 고집, 또는 소심함을 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은 생명과 사랑, 그리고 소망이십니다.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의 형제이자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님,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부르시며 제자의 길에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함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통해 새 생명을 주셨고, 많은 증인들과 함께 희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어 주소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도록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소서. 수많은 ‘두 번째 마일’을 걸을 수 있는 인내를 주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소서.

하나님, 성령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담대히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불을 지펴 주소서. 아멘.

기고자: 로즈마리 베너 주교 | **장소:** 독일

설교 준비

- 양성은 우리 자신의 지혜에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길을 구하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시편 119편).
- 제자훈련은 **은혜와 의도적인 노력**을 모두 필요로 합니다. 시편 제작자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지만 동시에 도움을 구합니다.
-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아래 각자의 은사를 **발휘할 때** 교회는 성숙해집니다(에베소서 4장).
- 진정한 기독교인의 성숙함은 나이나 성취가 아니라, **통일성, 안정성 그리고 진실성**으로

측정됩니다.

- 예수님은 성스러운 장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평범한 리듬** 속에서 제자들을 양성하십니다(누가복음 5장).
- “**두려워하지 말라**”는 부르심은 제자들을 망설임에서 사명으로 이끌어 냅니다.
- 양성은 안락함이 아니라 **사명으로** 이어지며,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옛 습관을 버립니다.
- '기적의 주일' 캠페인은 바로 이러한 양육 과정을 반영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부르시고, 양육하시며, 파송하십니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개요

이번 주는 제자도가 **양육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즉, 하나님의 길을 걷는 법을 배우고, 성숙해지며,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양육은 언제나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토론 질문

1.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길에 계속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천은 무엇입니까?
2. 온 마음을 다해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3. 에베소서 4장은 다양한 은사가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과정을 묘사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교회를 강화하는 어떤 은사들을 보십니까?
4. 여러분의 문화적 또는 교회적 맥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숙”은 어떤 모습입니까?
5.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평소 일하고 있을 때 그들을 만나십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사람들을 만나시나요?
6.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여러분의 소명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형성합니까?
7.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미래 지도자들에게 신학적 형성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8. 제자훈련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한 걸음을 내딛기를 초대하고 계십니까?

영상 간증

오늘 우리는 하라레(Harare)에 있는 유나이티드 신학교의 학생 **가브리엘라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녀는 삶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순간에 기쁨과 의미, 그리고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학업은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들의 관대한 후원으로 가능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동영상 재생](#)

가브리엘라 쿤디오나의 증언 전문

저는 아버지와 사이가 틀어졌고, 아버지는 저에게 가서 예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이곳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에 오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은 가브리엘라 쿤드와나이고, 이것이 제 여정입니다.

저는 소울과 재즈를 연주하는 아티스트이자 작사가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랑스러운 분들과 함께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지고, 하나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아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처럼 오락과 즐거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온 사람에게는요. 처음에는 이곳에 있는 게 정말 불편했지만, 이제 제 삶에서 예수님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마치 엘리야의 성전에 있던 사무엘처럼 느껴지네요.

유나이티드 신학대학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명과 그 소명에 대한 이해를 저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여기서 배우는 모든 것이 정말,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날이 정말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이 여정에서 저를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이어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통해 강력한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가브리엘라와 같은 더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지역 사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끌어 나갑시다.

2주차 — 9월 13일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

서론

제자훈련은 인간의 힘만으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신자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용기와 기쁨, 그리고 신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다양한 문화와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와 기도, 공동체, 그리고 선교를 통해 성령을 경험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초기 교회에 능력을 주셨던 바로 그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능력을 주시고 계심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세워 주시고, 충만한 생명을 주시며, 세상을 축복하러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신학 교육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는 성령으로 형성된 지도자들이 활기찬 교회를 위해 필수적임을 확신합니다. 성령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아 증거하고, 섬기며, 이끌어갑니다.

성경 본문

시편 16편

시편 16편은 신뢰와 기쁨의 노래입니다. 시편 제작자는 안전이 세상의 권력이나 소유물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 외에는 내게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깊은 의존을 표현합니다. “주의 면전에는 기쁨이 충만하도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동행이 평화와 기쁨을 모두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기쁨은 특정 문화나 장소에 국한되지 않으며,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이의 유산입니다. 시편 제작자는 또한 하나님을 깊은 밤 시간에도 신자들을 인도하시는 조연자이자 보호자로 묘사합니다. 전 세계 교회를 위해 시편 16편은 성령께서 위로와 힘, 그리고 방향의 근원이심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학 교육은 미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고 영적 회복력을 기르도록 돕습니다.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확신에 찬 소망으로 기뻐하고, 신뢰하며, 섬길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골로새서 2:6-10

바울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곧 믿음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며, 굳건히 서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안정과 성장을 말해 줍니다. 뿌리는 양분을 흡수하고, 건물은 견고한 기초를 통해 힘을 얻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러한 비유들은 일상생활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 영적 깊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라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가르침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의 온전한 충만함이 거하시며”, 신자들은 그분 안에서 “충만”해집니다. 성령께서는 이 충만함을 현실로 만들어 주시며, 제자들이 지혜와 분별력, 그리고 감사함 안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하십니다. 전 세계 교회들에게 이 본문은 건전한 가르침 위에 믿음을 굳건히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공동체가 신학 교육에 투자할 때,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고 복음을 왜곡하는 압력에 맞설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교회는 성숙한 신실함으로 자라납니다.

요한복음 10:10

예수님은 도둑의 파괴적인 의도를 자신의 사명인 풍요롭고 넘치며 생명을 주는 것과 대조합니다.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 번영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적 생명력, 회복된 관계, 의미 있는 목적을 포함합니다. 문화권을 넘어 사람들은 온전하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예수님은 이를 정확히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은 양을 알고 그들을 위해 삶을 내려놓는 선한 목자로서의 그분의 정체성에서 비롯됩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인도하고 위로하며 힘을 실어줌으로써 이 일을 계속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은 풍성한 생명이 선물이자 소명임을 깨닫도록 초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공동체는 굶주린 자를 먹이고, 슬퍼하는 자를 위로하며, 정의를 옹호하고, 희망을 선포함으로써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신학 교육을 통해 양성된 지도자들은 각 지역 교회의 맥락 속에서 이 풍성한 생명을 구현하도록 돕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묵상과 기도

골로새서 2:6-10 — 뿌리내리고, 세워지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다

성경 본문: 골로새서 2:6-10

묵상 / 성경 묵상:

“오늘 당신의 영혼은 어떠합니까?” 존 웨슬리의 이 잘 알려진 질문은 솔직한 성찰을 이끌어 냅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공개적으로 증언한 탓에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평안과 담대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신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위에 삶을 세우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강해지고 감사함으로 넘쳐흐릅니다.

신실함을 시험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내리는 것은 종이자 제자로서 우리 존재 전체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결은 순종을 형성하고 영향력을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을 세상의 유익을 위해 나눕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헛된 철학과 거창한 헛소리를 거부합니다.

우리에게는 능력을 제한하는 개인적인 “감옥”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겸손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깁시다. 우리의 삶과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능력, 사랑, 부르심을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며, 뿌리내리고 세워져 열매를 맺는 종들이 그분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계속해서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쁘게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끌어 나갑시다.

기도:

주 예수님,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구원의 뿌리를 굳건히 하소서. 주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 주소서. 견고한 기초 위에 사역을 깊이 있게 하소서. 주의 은사와 기쁨부으심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을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소서. 섬김을 방해하는 어려움들 위에 주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 학교, 직장, 그리고 교회를 축복하소서.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고자: 조셉 Y. 레예스 목사 | 장소: 필리핀 잠발레스

요한복음 10:10 —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

성경 본문: 요한복음 10:10

묵상 / 성경 묵상:

1992년, 전아프리카교회협의회(All Africa Conference of Churches)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바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삶”이라는 주제로 하라레에 모였습니다. 많은 아프리카인들에게 있어 당시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시급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삶을 경험했는가, 아니면 풍성한 문제들을 겪었는가? 그 답은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이미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가난, 이주, 질병 등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주일에 모금된 기금으로 양성된 목회자들은 이 선언을 주변부로 밀어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풍성한 삶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 풍성함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들을 허물어 주십니다. 기적의 주일(Miracle Sunday)의 본질은 지정된 지역의 신학 교육을 위한 후원을 모으는 데 있습니다. 기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각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풍성하게 베풀기로 응답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헌금의 혜택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풍성한 삶의 핵심인 마음의 평화와 희망을 가져다주는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새로운 모습을 그려볼 때, 성령이 이끄시는 이 기적의 주일이 우리에게 관대하고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도록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기도: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풍성히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역을 위해 전심으로 드림으로써,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자비의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기여자: 에벤 K. 니와티와 주교 | **지역:** 짐바브웨

요한복음 10:10 — 세상을 위해 받고 나누는 풍성한 삶

성경 본문: 요한복음 10:10

묵상 / 성경 묵상:

“내가 온 것은 모두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단순한 생존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미와 목적, 기쁨, 그리고 영적 충만함이 있는 삶을 주십니다. 풍성함은 소유나 지위로 측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은혜는 선물입니다. 많은 이들이 성취나 쾌락 속에서 충족감을 찾으려 하지만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어떤 상황도 흔들 수 없는 평화와 희망, 그리고 정체성을 주십니다. 풍성한 삶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이 풍성함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 이를 나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날 때, 그 사랑은 연민과 정의, 친절로 흘러나옵니다. 풍성한 삶을 나누는 것은 격려, 용서,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일상 속의 빛나는 행동 등 다양한 형태를 띵니다. 이 소명은 책임을 수반합니다. 우리는 공동의 선을 위해 재능과 시간, 자원을 사용합니다. 직장,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하며, 치유와 희망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합니다. 풍성한 삶은 축복이자 사명이며,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타인에게 사랑을 베푸는 여정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채로, 우리는 충만하게 살아가며 다른 이들도 그분이 약속하신 충만함을 경험하도록 돕습니다.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오셨습니다. 그 풍성함이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만족을 주지 못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친절과 연민, 봉사를 통해 그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의 빛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용기와 시련 속에서도 증언할 힘을 주십시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선하심을 증거하여, 다른 이들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변화없이 주시는 사랑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고자: 베넬린 D. 파스쿠아 | 위치: 필리핀

설교 준비

- 성령님은 기쁨과 힘, 그리고 방향의 근원이십니다(시편 16편).
-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불확실한 시기에 제자들을 지탱해 줍니다.
-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세워지는” 것은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깊은 제자훈련의 의미합니다(골로새서 2장).
- 성령께서는 복음을 왜곡하는 거짓 가르침과 문화적 압력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 풍성한 삶은 물질적 과잉이 아니라 영적 충만, 의미 있는 목적, 그리고 새롭게 된 공동체입니다(요한복음 10:10).
- 성령께서는 제자들이 세상, 특히 소외된 이들과 삶을 나누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공동체 안에서 기쁨과 진리, 그리고 연민의 전달자가 됩니다.
- 신학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리더십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개요

이번 주는 기쁨과 지혜, 능력과 분별력의 근원으로서 성령을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형성될 뿐만 아니라, 용기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습니다.

토론 질문

1. 시편 16편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묘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 경험에서 무엇이 “기쁨의 충만함”을 가져다줍니까?
2. 불확실한 시기에 여러분의 공동체는 어디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까?
3. 골로새서 2장은 뿌리와 기초라는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뿌리내리도록 돕는 것은 무엇입니까?
4. 당신의 환경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초에서 벗어나게 할 위험이 되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5.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문화권에서 풍성한 삶은 어떻게 이해되고 있습니까?
6. 당신의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경험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7. 성령께서는 어려움이나 제한된 자원을 겪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힘을 주십니까?
8. 성령의 능력을 받은 리더십은 전 세계적으로 신학 교육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비범한 환경 속에서 전도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펼치고 있는 한 지도자의 또 다른 강력한 간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라이베리아의 프린스 너클스 잘리아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주님, 이번 주에 제가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끌도록 주님은 어떻게 부르시고 계십니까?

[여기를 클릭하여](#) 동영상을 재생하세요.

프린세스 너클스 잘리아의 강연 전문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는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1장에 근거한 것입니다. 제 이름은 프린세스 너클스 잘리아 목사입니다. 저는 현재 연합감리교회 라이베리아 연회 전도 및 선교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덕분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후원해 주셨기에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제 삶에 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꼈고 신학교에 가야만 했던 때가 기억나지만 신학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대학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던 시절,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리처드 올리버 목사를 통해 제 교회를 미국의 한 지역 교회와 연결해 주셨고, 그분의 교회 덕분에 저는 신학 학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장학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직후, 존 G. 에니스 주교님의 도움으로 신학 석사 학위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학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타인의 선의 덕분임을 깨닫고, 저도 우리 연회 내의 많은 젊은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등록금을 지원해 주거나 장학금 정보를 연결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따라서 신학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를 훨씬 더 중요하고 효과적으로 만드는 것은, 어딘가에 기꺼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신학 교육을 후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사역에 대한

열정을 품고, 사역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많은 형제자매와 젊은이들이 있지만, 신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기부하시는 그 작은 금액이라도, 한 청년이나 한 젊은 여성이 교육을 받고 지역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교회가 폭풍우를 겪고 있는 시기에 말이죠. 많은 목사님들이 연합감리교회가 더 이상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떠나갔습니다.

그러니 부디 기부해 주시고 힘을 실어 주세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여성 성직자도 필요합니다. 사역에 헌신하고 싶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젊은이들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가진 작은 것을 내어주십시오. 그 작은 것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열린 마음과 기대에 찬 믿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 봅시다.

3주차 — 9월 20일

담대하게 사랑하라

서론

담대한 사랑은 적극적이고, 용감하며,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이웃과 낯선 사람, 심지어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제자훈련의 결정적인 표징이라고 가르치셨으며, 성경은 사랑이 정의와 연민, 그리고 진실한 관계를 통해 표현된다고 보여줍니다. 교회들이 ‘기적의 주일 캠페인’을 후원함에 따라, 우리는 신학 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대륙을 넘어 사역을 강화하는 담대한 사랑을 기념합니다. 담대한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 안에서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장벽을 허물며, 하나님의 자비를 분명히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부릅니다. 이번 주의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성품에 뿌리를 두고 용기있게 실천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레위기 19:9-18

이 본문은 실질적인 정의를 통해 표현되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확물의 일부를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위해 남겨두라고 명하시며, 진정한 거룩함은 악자를 돌보는 것임을 확인하십니다. 도둑질, 거짓말, 착취, 억압을 금하는 명령들은 사랑이 경제적·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을 보여줍니다. “네 이웃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 방관하지 말라”는 지시는 적극적인 책임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은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절정에 이르며, 이는 후에 예수님에 의해 재차 강조되었습니다. 이 비전은 모든 문화에 적용됩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공정함, 관대함, 그리고 연민으로 구현되는 구체적인 것입니다. 전 세계 교회를 위해 레위기 19장은 빈곤, 불의, 배제를 다루는 사역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신학 교육은 지도자들이 이러한

원칙들을 신실하게 해석하고,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정의를 실천하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요한복음 13:34-3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곧,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담대하고, 희생적이며, 겸손하고, 변함없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들의 실수를 용서하시며,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예수님은 사랑이 리더십의 진정한 척도임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사랑은 세상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알아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사랑의 증거는 여전히 강력합니다. 사랑은 분열을 허물고, 일치를 이루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합니다. 담대하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특히 갈등이나 불확실성이 있는 시기에 용서, 인내,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기적의 주일(Miracle Sunday)’ 캠페인은 전 세계 교회가 신학 교육을 지원하고 기독교 공동체를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담대한 사랑을 실천하도록 촉구합니다. 훈련받은 지도자들을 통해 교회들은 학교, 가정, 시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본보기로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12:28-34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 묻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마음과 영혼, 생각과 힘을 다하는 전인적인 헌신입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을 요약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문화권에서 이 구절들은 기독교 윤리와 공동체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 제사만 드리는 것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한 점을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세대가 자신의 종교적 실천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깊게 하는가? 사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굳건하게 하는가? 신학 교육은 지도자와 교회가 빈곤, 갈등, 문화적 다양성, 사회적 변화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지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담대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이 계명들이 삶의 모든 측면을 형성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묵상과 기도

요한복음 13:34-35 — 담대하게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기

성경 본문: 요한복음 13:34-35

묵상 / 성경 묵상: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담대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곧,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분명하고, 희생적이며,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이는 타인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세상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줍니다.

마음과 힘과 생각을 다해 담대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온유함과 친절함,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어려울 때에도 용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매일의 선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냅니다.

실제로 담대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족을 사랑하기가 힘들때 가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갚을 수 없는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옳음을 주장하기보다 친절과 환대, 선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타인을 먼저 생각하며, 연민과 겸손으로 섬기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기도:

기적의 주일을 맞이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기쁨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채워 주시어, 우리가 기쁘게, 기꺼이, 자유롭게, 그리고 희생적으로 베풀 수 있게 하소서. 아멘.

기고자: 필립 미카 도파 목사(박사), FIMA | **위치:** 나이지리아

마가복음 12:28-34 — 진실한 삶의 심장박동

성경 본문: 마가복음 12:28-34

목상 / 성경 목상: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첫 번째 계명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경을 하나의 핵심으로 요약하십니다. 곧 마음, 영혼, 생각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분리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Shema는 언약의 관계를 정의합니다.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전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을 레위기 19장 18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연결시키십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는 수평적 관계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 서기관은 이 사랑이 제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주일’은 신학 교육을 위한 헌금을 요청합니다. 교회는 알지 못하는 것을 사랑할 수 없으며,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도자 양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 교육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수고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단순한 자선이 아닌 연대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실업, 성별에 기반한 폭력, 외국인 혐오, 생태계 파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사랑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

사랑하는 하나님, 이 말씀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우리 제자훈련의 핵심입니다.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불평등이나 배제가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사랑이 불의를 무너뜨리게 하소서. 상처나 분열이 있는 곳에서는 우리의 사랑이 치유와 화해를 가져오게 하소서. 우리가 행함과 진리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이 거룩한 소명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그 길을 가르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고자: 트레이시 음발로-추응와나 목사 | **장소:** 남아프리카공화국

설교 준비

- 대담한 사랑은 **실천적인 사랑**입니다—실용적이고, 공정하며, 자비로운 사랑입니다(레위기 19장).
-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경제적 정의**, 공정한 대우,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은 **희생적이고 눈에 보이는 사랑을** 요구합니다(요한복음 13장).
- 기독교인은 교리만으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로** 알려집니다.
-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제자훈련의 **핵심 방향이다**(마가복음 12장).
- 대담한 사랑은 문화, 부족, 민족, 지위의 경계를 넘나듭니다.
- 대담한 사랑은 종종 **어려운 관계와 제도 속에서 용기를** 요구합니다.
- 신학 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미래 세대를 향한 담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개요

이번 주는 교회가 적극적이고, 용기 있으며, 눈에 띄는 사랑을 실천하도록 촉구합니다. 사랑은 정의와 연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반영하는 관계를 통해 표현됩니다.

토론 질문

1. 레위기 19장은 사랑과 정의를 연결합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어떤 정의로운 행동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2. 여러분의 상황에서 “방관하지 않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3.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주변에서 담대하고 그리스도 같은 사랑이 실천되는 모습을 어디에서 보십니까?
4. 과감한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며, 공동체는 이를 실천하는 데 서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5.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나로 묶으십니다. 일상생활에서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6. 사랑은 어떻게 여러분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응답하도록 이끌 수 있을까요?

7.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가 더 담대하게 사랑하도록 부르시는 곳은 어디일까요?
8. 신학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게 대륙을 넘어 담대한 사랑을 표현하는가?

영상 간증

오늘 우리는 루마니아의 라레스(Rares) 씨의 또 다른 간증을 듣게 됩니다. 그의 사역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영상 재생

라레스 칼루가르의 영상 대본

20년 전 사역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이곳에 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 했습니다. 말과 마차를 타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며 시작했으니까요. 저는 존 웨슬리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들판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싶은 열망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연합감리교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우리는 루마니아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싶었고, 이 정통파 교회 신자들과 함께 걸어가길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루마니아 인구의 90%가 정통파 교회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라데슈 칼루가르이며, 루마니아 연합감리교회 역사상 최초로 안수받은 장로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여정이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연합감리교회에 합류한 것은 2011년이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 전역에 웨슬리주의를 더욱 널리 전파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루마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러 지역 사회 센터와 함께 속하며, 우리의 모든 소망과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은 지역 사회에 봉사하고, 정통파 교회 신자들의 영적 눈이 열릴 때까지 그들의 영적 여정을 함께 걷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나아가 이 소식을 널리 전하고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자 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저도 힘을 얻었고, 신학교에 보내거나 목회자로 훈련받게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훈련받는 모습을 받아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감리교회가 저를 위해 해 주셨고, 에스토니아 탈린에서 저에게 이 경험을 선사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그 일이 루마니아에서도 발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루마니아에 더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자 하며, 훈련 중인 목회자가 절실히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후원은 이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우리의 소망에 있어 매우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아낌없이 베푸는 분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이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이후 -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 소그룹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십시오
- 전 세계의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우리 교회가 어떻게 차세대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 여쭙어 보십시오

우리는 함께, 우리의 헌신을 통해 전 세계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4주차 — 9월 27일

기쁨으로 섬기십시오

서론

기독교인의 봉사는 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헌사입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타인을 축복하고자 하는 소망을 반영합니다. 이번 주 성경 말씀은 기쁨과 봉사가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봉사는 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 속에서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교회가 ‘기적의 주일 캠페인’을 후원함에 따라, 우리는 신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가르치고, 이끌고, 격려하고, 치유할 때 솟아나는 기쁨을 함께 축하합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봉사는 성령의 선물이며, 겸손과 너그러움, 사랑으로 빛어집니다.

시편 100편

시편 100편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시편 기자는 공동체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섬김은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문에 들어가는 이미지는 개방성, 기쁨, 경외의 정신을 전달합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교회들은 이 시편을 예배에 사용합니다. 이는 기쁨으로 찬양하라는 보편적인 부르심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쁨에 뿌리를 둔 봉사는 우리가 일하고, 관계를 맺고, 베푸는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환대를 베푸든, 아이들을 가르치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든, 기쁨으로 하는 봉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합니다. 신학 교육은 지도자들이 사역 속에서 기쁨의 정신을 키우도록 돕고, 회중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섬기도록 인도합니다.

베드로전서 4:8-11

베드로는 신자들에게 깊이 사랑하고, 환대를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는 말하기, 가르치기, 돕기, 격려하기 등 모든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러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기쁨으로 섬긴다는 것은 공개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모든 기여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상호 돌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세계 여러 곳에서 교회는 각 성도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여 전체를 강화할 때 번성합니다. 이 본문은 성도들이 섬김을 의무가 아니라 특권으로 여기도록 격려합니다. 신학 교육은 지도자들이 공동체 내의 은사를 발견하고, 평신도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며, 기쁨과 겸손으로 섬기는 사역을 육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가복음 10:42-45

예수님은 섬김을 통해 위대함의 의미를 재정의하십니다. 권력이 종종 통제나 명예를 의미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은 참된 리더십은 겸손과 섬김으로 특징지어진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모델은 모든 곳의 문화적 규범에 도전합니다. 기쁨으로 섬기려면 종종 지위를 내려놓고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이 본문은 지도자들—목사, 교사, 봉사자—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겸손을 실천할 수 있을지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신학 교육은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 지혜와 연민, 용기를 가지고 섬기는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설교 준비

-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데서 비롯됩니다(시편 100편).
- 기쁨은 영적인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집이 아니라 특권임을** 보여줍니다.
- 모든 신자에게는 다른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베드로전서 4장).
- 봉사는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드릴 때 강력해집니다.
- 예수님은 위대함을 권위나 인정이 아니라 **섬김으로** 재정의하셨습니다(마가복음 10장).
- 기쁨으로 드리는 봉사는 교만을 무너뜨리고 문화적, 사회적 경계를 넘어 다리를 놓습니다.
- 기쁨으로 섬기는 일은 특히 어려움 속에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강화합니다.
- 지도자와 성도들이 **기쁨과 겸손으로** 섬길 때 교회의 증거는 더욱 커집니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개요

기쁨으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에서 비롯됩니다. 성경은 신자들이 기쁨으로 섬길 때 공동체가 강화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를 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촉구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타인의 유익을 위해 은사를 사용하도록 권면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의

예수님은 참된 위대함이 겸손과 섬김을 통해 온다는 것을 보여 주십니다. 교회가 ‘기적의 주일 캠페인’에 동참함에 따라, 기쁨으로 섬기는 일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공동의 간증이 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반영이 됩니다.

토론 질문

1. 시편 100편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라”고 권합니다. 의무감보다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 실천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향상시켜 주는 일상적인 습관, 예배, 감사, 또는 교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2. 시편 기자는 공동체에게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라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이 타인을 섬기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 여러분의 동기와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3. 다양한 문화권에서 교회 공동체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환대, 가르침, 음악, 이웃 돌봄을 통해 어떻게 기쁨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사역의 예를 나누어 보십시오.
4. 베드로전서 4장 8-11절에서 모든 믿는 이는 섬기기 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어떤 은사를 발견하시나요? 그리고 여러분의 그룹 내 다른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은사를 보시나요? 그 은사들이 여러분의 교회를 어떻게 강화할 수 있을까요?
5. 베드로는 깊은 사랑과 환대를 강조합니다. 교회가 따뜻하고, 너그럽고, 지속 가능한 환대를 실천하는 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요? 환대통해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어디에서 보시나요?
6. 베드로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거나 개인적인 만족보다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나누어 보세요.
7. 마가복음 10장 42-45절에서 예수님은 위대함을 타인을 섬기는 것으로 정의하십니다. 여러분의 교회나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리더십의 예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겸손한 지도자들은 교회의 삶을 어떻게 형성합니까?
8. 예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이 리더십, 권력, 성공에 대한 문화적 기대에 어떤 도전을 던집니까? 여러분의 환경에서 기쁨으로 그리스도를 섬김은 어떤 모습입니까?
9. 기쁨이 넘치는 섬김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필요보다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하도록 부릅니다.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언제 목격하셨나요? 여러분의 교회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10. 신학 교육은 목회자, 교사, 평신도 지도자들이 글로벌 교회에서 기쁘게 봉사를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온전하게 형성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리더십이 전 세계 모든 교회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동영상 간증

오늘 우리는 나이지리아의 필립 미카 도파(Philip Micah Dopah) 목사의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의 사역은 사람들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다음을 기억합니다:

- 우리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 우리의 참여는 중요합니다
- 우리의 나눔은 중요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동영상을 재생하세요.

필립 미카 도파 목사님의 발언록

전 세계 연합감리교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나이지리아 Episcopal 지역 목회자이자, 나이지리아 Episcopal 지역에서 연결 사역(Connectional Ministries) 국장을 맡고 있는 필립 마이크 도파(Philip Mike Dopa) 목사입니다. 저는 연합감리교회의 선한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삶을 변화시키며, 희망과 변화를 촉진하는 일에 우리와 함께할 소명을 받은 남녀의 훈련을 지원해 주십시오.

신학 교육은 모든 교회의 삶에서 중요한 사역의 기초를 이룹니다. 저는 신학 교육의 산물이며, 그 신학 교육 덕분에 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형성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 우리 연회와 나이지리아 전역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신학 교육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두 명의 중퇴 신학생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즉 열악한 가정 환경에도 불구하고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때문에 그들은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고, 이제 교회를 위해 매우 훌륭하게 섬기며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필리핀, 유럽에서 매년 500명의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 기금을 모금하고, 성도들에게 기금 모금을 호소함으로써 대담하고 시대를 초월한 발걸음을 내디딘 연합감리교회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이는 올바른 방향으로 내디딘 올바른 발걸음입니다. 전 세계 연합감리교회 모든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아낌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헌금은 삶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국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2주 후인 **10월 11일**, 우리는 버지니아주 내 다른 교회들과 함께 ‘**기적의 주일(Miracle Sunday)**’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날은 전 세계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교육을 영구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희생적인 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담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끌도록 빚어 가시는 동안, 우리도 계속해서 마음을 열어 둡시다.

5주차 — 10월 4일 (세계 성찬 주일)

용기 있게 인도하라

서론

용기 있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제한된 자원, 사회적 압력, 불의, 혹은 불확실성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경은 용기가 우리 자신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칩니다. 이번 주는 믿음에 뿌리를 두고, 정직함으로 다듬어지며, 정의에 헌신하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춥니다. 교회는 신학 교육을 통해 지혜와 회복력으로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들에게 투자합니다. “용기 있게 이끌다”는 것은 길이 험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준비시키시며, 우리 앞에 나아가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한 걸음 내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5-9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새로운 땅으로 이끌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강력한 명령을 되풀이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불확실성과 책임감에 직면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으로 그의 용기를 굳건히 하십니다. 이 본문은 모든 상황에서 리더들에게 용기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라는 지시를 받는데, 이는 담대한 리더십과 신실한 순종을 연결해 줍니다.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사역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준비시켜 주신다는 확신을 줍니다. 신학 교육은 성경적 기초, 영적 규율, 그리고 변화를 통해 공동체를 이끌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진 지도자들을 강화합니다.

시편 27:1-3, 14

시편 27편은 깊은 신뢰를 표현합니다. “여호와야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시인은 실제적인 위협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러한 신뢰는 신자가 어려움에 둘러싸여 있을 때에도 굳건히 서게 합니다. 14절은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 마음이 용기를 내라.” 분쟁, 고난, 또는 불확실성을 겪는 문화 속에서 이 말씀들은 위로와 결의를 줍니다. 용기 있는 리더십은 두려움을 부정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앞으로 나아갑니다. 신학 교육은 지도자들이 영적 회복력을 기르도록 돕고, 이를 통해 다른 이들을 격려하고 강화할 수 있게 합니다.

에베소서 6:10-18

바울은 신자들에게 “주 안에서 강해지라”고 권면하며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당부합니다.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상징들은 모든 지도자가 활용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을 보여줍니다. 이 갑주는 교회가 도전과 유혹, 불의에 맞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무장시킵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 기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청렴함과 결의를 시험하는 압박에 직면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힘이 인간의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학 교육은 지도자들에게 성경적 지식, 윤리적 토대, 영적 훈련을 갖추게 하며, 이는 담대한 리더십을 위한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이사야 58:6-10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의를 맞서고 해방을 가져오는 예배의 형태를 실천할 것을 촉구합니다. 참된 금식은 억압의 사슬을 끊고, 굶주린 자와 빵을 나누며, 집 없는 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용기 있는 리더십은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며 사회의 변화를 위해 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정의를 추구할 때 빛이 비치고 치유가 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은 빈곤, 폭력, 불평등이 지속되는 모든 문화권에 걸쳐 울려 퍼집니다. 용기 있는 지도자들은 존엄성, 공정함, 그리고 연민을 옹호합니다. 신학 교육은 예언자적이며, 연민이 넘치고, 하나님의 정의에 헌신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묵상과 기도

에베소서 6:10-18 — 용기 있게 이끌라

성경 본문: 에베소서 6:10-18

묵상 / 성경 묵상:

연합감리교회는 용기 있게 이끌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공적인 신앙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세속적인 맥락에서, 용기 있는 리더십은 그 자체를 위해 시끄럽거나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할 때 대가를 치러야 할 때에도 복음에 충실합니다. 침묵하는 것이 더 안전할 때에도 불의를 지적하고, 약자를 변호하며, 옳은 일을 위해 행동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우리의 대적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이라고 상기시킵니다. 그 어둠은 불의한 법, 환경 파괴, 박해, 소수자에 대한 비인간적 대우, 그리고 전쟁 속에서 나타납니다. 문제는 굳어지지 않으면서 어떻게 굳건히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갑주는 영적이면서도 실용적입니다. 진리, 의, 평화, 믿음,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것들은 공격의 무기가 아니라, 회복탄력성이 있고 희망으로 가득 찬 리더십을 위한 자원입니다.

선지자들은 참된 믿음이 불의의 멍에를 풀어주고, 굶주린 자와 빵을 나누며, 집 없는 자를 보호하고, 고통받는 이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교회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정하는 모든 것을 대적합니다. 모든 문화권에서 예배가 정의를 복돋우고,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며, 리더십이 그리스도의 해방하는 사랑을 반영하게 하도록 바랍니다.

기도:

진리와 자비의 하나님, 두려움이 침묵을 유혹할 때 주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라고 부르십니다. 용기 있게 이끌 수 있는 힘과 회복력을 주소서. 거짓이 만연한 곳에서 진리를 말하고, 존엄성이 부정되는 곳에서 정의를 추구하며, 어둠이 주님의 사랑하는 이들을 상처 입히는 곳에 빛을 비추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입히소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고, 해로운 체제에 맞서며, 고통받는 이들과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말과 행동의 용기를 주소서. 연합감리교회를 기도가 정의로, 예배가 자비로, 리더십이 은혜로 빛어낸 섬김으로 이어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고자: 알베르트 안데르센 욘스톨 목사, 지역 감독 | **장소:** 노르웨이

여호수아 1:5-9

성경 본문: 여호수아 1:5-9

묵상 / 성경 묵상 (주제: 담대하게 인도하라):

하나님께서서는 불확실성에 직면한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세상을 떠났고, 광야의 여정은 끝나가고 있으며, 약속의 땅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막중한 책임과 기대를 안고 전환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략이 아니라 임재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용기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호수아에게 세 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용기는 신뢰에 뿌리를 둔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의 힘은 군사력이나 리더십 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의지로부터 나옵니다.

이는 ‘용기 있게 이끌기 - 기적의 주일 운동’과도 연결됩니다. 연합감리교회가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에서 신학 교육을 강화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또한 비전과 필요를 앞에 두고 전환점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변함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용기 있는 리더십은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의 자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신뢰하며, 지도자 양성에 대한 투자가 세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믿으며, 관대함을 믿음의 행위로 여깁니다. 기적은 우리가 모금한 금액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바로 담대한 믿음과 하나된 목적,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진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

자비로우시고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께서서는 여호수아에게 담대하게 이끌도록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번 주 우리도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담대하게 이끌기 - 기적의 주일’ 운동이 연합감리교회 전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모든 교회와 지도자, 그리고 기부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소서. 기도와 예배, 그리고 관대함이 넘치는 이 시기에 주교와 목사, 평신도 지도자, 그리고 성도들을 굳건히 세워 주소서. 미래가 불확실하게 느껴질 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신학 교육을 함께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 사역으로 여기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신실한 지도자들에게 투자하는 것이 대위임령을 전진시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시오. 두려움을 없애시고 주저함을 거룩한 확신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의 용기를 주님의 임재 안에 굳건히 세워 주십시오. 우리의 행동이 신뢰를, 우리의 헌금이 감사를, 우리의 리더십이 그리스도를 반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고자: 프로스퍼 은티렌가나 목사 | **장소:** 르완다

설교 준비

- 용기는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겠다는 약속에서** 비롯됩니다(여호수아 1장).
- 지도자는 압박을 견뎌내기 위해 **성경과 순종**에 굳게 뿌리내려야 합니다.
- 용기에는 **행동과 기다림**이 모두 포함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내면의 힘을 키웁니다(시편 27편).
- 영적 전쟁은 실재합니다. 지도자들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가 필요합니다(에베소서 6장).
- 용기 있는 리더십은 **불의와 억압**에 맞서는 것을 포함한다(이사야 58장).
- 하나님의 리더십 비전은 권력자가 아닌 약한 자들을 우선시합니다.
- 리더가 **정직과 연민, 인내**로 행동할 때 용기는 자라납니다.
- 신학 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다양한 환경에서 용기 있게 이끌 수 있는 지도자를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개요

용기 있는 리더십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기초하며, 성경에 의해 형성되고, 정의와 연민을 지향합니다.

토론 질문

1. 여호수아 1장에서 용기는 하나님의 임재에서 나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상기시켜 줍니까?
2. 시편 27편은 주님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기다림이 어떻게 용기를 키워줍니까?
3. 여러분의 공동체에서 어떤 도전들이 용기 있는 리더십을 필요로 합니까?
4. 에베소서 6장에는 영적인 자원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중 여러분이 가장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5. 지도자들은 압박이나 반대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정직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6. 이사야서 58장은 정의를 촉구합니다. 용기 있는 대응이 필수인 불의를 어디에서 보십니까?
7. 오늘날 여러분의 교회나 지역에는 어떤 용기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까?
8. 신학 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세계 교회의 용기 있는 지도자들을 어떻게 형성합니까?

동영상 간증

지난 몇 주 동안 우리는 짐바브웨, 라이베리아, 루마니아, 나이지리아에서 사역하는 지도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간증은 도전이 큰 곳일수록 용기 있는 리더십이 자라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더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시에라리온의 사이먼 피터 코로마 목사님의 또 다른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그의 사역은 놀라운 방식으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여](#) 동영상 재생

사이먼 피터 코로마 목사님 영상 대본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부흥함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고 파괴적인 신학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갖춘 아프리카 신학자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시에라리온 연합감리교 대학교 Bishop Vena 신학대학원의 사이먼 피터 삼쿠웜마 목사입니다. 신학 교육 기관들은 국가 건설과 평화 증진, 종교적 관용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리 기관들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자금, 인프라, 기술 접근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은 현지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고 외부 파트너들의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이번 캠페인이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당시,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학생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선교사들이 자신의 급여를 아껴서 대학 학생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으며, 덕분에 대학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체류 기간 동안,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이 종종 소외되는 상처 입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인종이나 피부색, 민족을 불문하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학 교육은 오늘날 우리 세대에게 정말, 정말, 정말로 유익하며, 여러분이 신학 교육을 후원해 주시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입니다.

이 캠페인은 신앙의 지도자, 인격의 지도자, 평화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바로 그 기관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신학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후원은 이 지역에서 매우, 매우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미래에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젊은 지도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끌어가는 이 캠페인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의 신학 기관들을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됩니다.

이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묵상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디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끌기를 부르시는가?
- 내 삶이 어떻게 다른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실까요?

다음 주일인 5월 17일, 우리는 전 세계 목회자들을 위한 신학 교육을 영구적으로 후원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기부하는 날인 ‘**기적의 주일(Miracle Sunday)**’을 맞아 수천 개의 교회와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사람들로 빚어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열린 마음으로 함께 걸어가 봅시다.

6주차 — 10월 11일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 기적의 주일 헌금

서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개인적인 신실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언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미치며,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사역에 동참하도록 초대하십니다. 기적의 주일에, 교회들은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 전역의 신학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힘을 합칩니다. 이는 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도자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변화는 예배에서 시작되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념하고,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예 감사하며, 세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 헌신합니다.

시편 96편

시편 96편은 온 세상을 향한 찬양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은 모든 민족에게 새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라고 촉구합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지역이나 부족의 신이 아니라 온 땅의 창조주이심을 확인합니다. 예배는 증거가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기쁨과 진리 안으로 초대합니다. 이 시편은 또한 의로우시고 공평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피조물 그 자체도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기뻐합니다. 전 세계 교회들에게 이 시편은 세계적 예배와 선교의 일치를 기념합니다. ‘기적의 주일(Miracle Sunday)’은 다양한 맥락에서 신학 교육을 지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알려지도록 가르치고, 설교하며, 섬길 새로운 지도자들을 양성함으로써 이러한 비전을 구현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나눌 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묵상과 기도

시편 96:1-3

성경 본문: 시편 96:1-3

묵상 / 성경 묵상:

저는 제 신앙을 형성해 준 많은 전통적인 찬송가를 사랑합니다. 또한 현재의 현실을 담아내는 새로운 찬송가들도 소중히 여깁니다. 연합감리교회에서는 이제 다양한 세계적 맥락 속에서 선교를 위한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와 연결된 상태를 유지하면서도, 각 맥락에 맞게 조정된 사역을 위한 자유를 추구합니다. ‘기적의 주일(Miracle Sunday)’ 또한 새로운 노래입니다. 우리 연합 내 모든 지역 교회가 공동의 대의를 위해 아낌없는 헌금을 드리도록 초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러한 상호 기여의 노래는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신학 교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 전통에 뿌리를 둔 이러한 교육은 영적, 사회적, 경제적 필요를 해결해 나갈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알리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이 특별한 주일에 전 세계 수천 개의 연합감리교회와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대대로 주님의 구원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기적의 주일’ 헌금이 앞으로 오랫동안 아프리카, 유럽, 필리핀의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지금과 영원토록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아멘.

기고자: 패트릭 스트라이프 주교 | 장소: 스위스

시편 96편 —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함

성경 본문: 시편 96편

묵상 / 성경 묵상:

시편 96편은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렸을 때의 축제 분위기를 되새깁니다(역대하 16:23-33). 이 시편은 주님께서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유일한 참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 핵심 진리가 드러납니다.

1. 새롭게 된 예배에 대한 부르심: 새 노래를 부르라는 초대는 예배가 항상 생생하고 진실해야 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2. 보편적인 선포: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 벽을 넘어, 국경과 문화, 언어를 초월하여 증언합니다.
3. 거룩함과 주권: 경외심은 성별(성)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삶을 낳습니다.
4. 의로운 심판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실 것이며, 악이 마지막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기적의 주일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더 깊은 헌신을 촉구합니다. 우리의 헌금을 통해 지도자들이 훈련받고, 복음이 전 세계에 계속해서 선포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고, 선교하며, 헌신하고, 희망을 품는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멘.

기도: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주님의 위엄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광채가 온 땅을 채우고 우리의 삶을 비추시나이다. 주님은 거룩하시며 모든 찬양을 받으실 만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기적의 주일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헌금이 주님께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께 영광과 존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고자: 피에르 반도라잉웨 목사 | **장소:** 콩고

성경 본문: 시편 96편

목상 / 성경 목상:

시편 96편은 역대기상 16장 23-33절을 시적으로, 예배 형식에 맞게 각색한 것입니다. 이는 모든 피조물과 모든 민족이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도록 촉구하는 활기찬 예배의 부름입니다. 이 시편은 선교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온 땅이 주님의 위대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선포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국경을 초월하는 새로운 노래를 요구합니다. 예배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전 지구적이며 포용적인 것입니다. 이 초대는 모든 사람이 단순히 듣는 자에 그치지 않고 노래하는 자가 되도록 확장됩니다. 우리의 삶은 타인을 사랑으로 대하고 의롭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시편 96편은 교회가 예배하고, 선교하며,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실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공의로운 통치를 희망하도록 부릅니다. 특히 필리핀과 같은 지역 연회에 속한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은 신학 교육을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미국을 넘어 신학 교육을 위한 영구 기금을 조성하자는 3만 개 교회와 목회자들을 향한 이 초청은, 연합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새로운 노래가 됩니다. 제자를 삼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가 됩시다.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함께 새로운 노래를 부르십시오.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의 주체가 되어, 당신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을 밝히고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소서.

우리가 안락한 영역을 벗어나 주님의 진리를 담대히 증언하며, 만나는 모든 이에게 화해와 정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분열의 벽을 허물고, 화합과 협력, 평화의 다리를 놓아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소서.

우리가 약한 자들을 섬기고, 궁핍한 이들을 돕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며, 모든 피조물에게 주님의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하소서. 우리가 한 마음과 사랑으로 연합하여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소서.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고자: 로버트 P. 바오당 행정 목사

장소: 마우이 연합감리교회, 마우이, 델핀 알바노, 이사벨라, 필리핀

설교 준비

- 예배는 **선교의 방향**을 정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할 때, 열방이 들읍니다(시편 96편).
- 하나님의 영광은 한 문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이는 **전 세계적인 소명**입니다.
- 제자훈련은 외부로 향한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 교회는 기쁨으로 선포하고, 섬기고, 베풀며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합니다.
- 변화는 정의, 자비, 화해, 그리고 전도를 포함한다.
- 기적의 주일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다른 이들이 훈련받고 파송될 수 있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 세계 교회는 공동의 헌신과 희생적인 관대함을 통해 강화됩니다.
- 하나님께서는 규모, 위치,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를 초대하셔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사명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소그룹 리더를 위한 개요

제자훈련은 선교로 이어집니다. 예배는 증거가 되고, 헌금은 하나님의 세계적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이번 주는 전 세계적인 연합과 헌신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토론 질문

1. 시편 96편은 모든 민족에게 찬양하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에게 세계적 예배는 어떤 모습입니까?
2. 여러분의 교회는 전 세계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3. 여러분의 지역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나요?
4. 당신의 교회는 말과 행동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5. 하나님의 사명을 전 세계로 확장하는 데 어떤 희생이나 헌신이 도움이 될까요?
6. 전 세계적인 변화를 위해 신학 교육을 지원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요?
7. 여러분의 지역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십니까?
8. 기적의 주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가 어떤 새로운 헌신을 하도록 초대하고 계십니까?

동영상 간증

오늘, 묘지에 사는 사람들을 섬기는 라이베리아의 목사 칼렙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이 기도를 품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은사와 기도, 그리고 삶을 사용하여 예수님처럼 세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여기를 클릭하여 영상 재생

영상 대본:

신학교에서 저는 존 웨슬리가 “세상이 나의 교구다”라고 말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곳 무덤과 묘비들 사이가 바로 제 강단입니다.

우리는 프랑스가 책임지고 있는 고인들, 사회에서 배척당한 이들, 갈 곳 없는 이들, 중독자들, 성노동자들, 그리고 모든 이들을 섬기기 위해 이곳에 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역이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험한 길과 넓은 길로 나아가 죄인들을 찾아내어 그들을 데려오라고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님의 목적과 영광을 위해 변화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 이름은 케일럽 도마입니다.

저는 메트로 하베스트(Metro Harvest), 즉 ‘벽 없는 교회’의 담임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삶의 험한 길과 넓은 길에서 사역하며, 사회가 배척하고 권리를 박탈당하게 하고 소외시킨 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깊은 곳까지 나아갑니다. 신학교의 신학 교육이 저에게 불어넣은 열정, 바로 그 유익한 열정 덕분에 우리가 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은, 중앙 연회 내 신학교와 신학 교육을 후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닿지 않는 곳을 바라보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케일럽’ 같은 이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신학 교육을 후원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학 교육에 대한 여러분의 후원은 단순히 학문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위해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복음의 진리와 깊이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오셨음을, 그분 없이는 우리 모두가 길을 잃은 자임을 알게 하는 것을 돕기 때문입니다.

신학 교육을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그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불타는 떨기나무’로 만들어 줍니다. 지금까지의 후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중앙 연회들의 신학 교육을 위해 계속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세계적인 신앙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인도하는 사람들로 계속 빛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후, 안내위원들이 특별 헌금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배포된 헌금 카드(*아래에 있으며, 교회에서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교회에서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카드를 나눠드리거나 좌석에 비치해 두실 것을 권장합니다*).

가능하신 대로, 지정된 헌금 등급 중 하나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자비롭고 베푸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큰 변화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제 안내위원들이 헌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신앙의 운동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사랑하고, 기쁨으로 섬기며, 용기 있게 이끌어가는 사람들로 계속 빛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